

建築과 繪畫

— 韓國瓦屋을 中心으로 —

(필자소개)

- 이대 · 홍대교수 역임
- 뉴욕 現代韓國美展 초대
- 국내외 개인전 18회 개최
- 현 · 대한미술원 원장

金 晴 江

序 言

나는 최근 작품(繪畫) 활동을 하는 畫家 중에서 지금은 이미 故人이 된 草家 畫의 名家 柳泉 金華慶氏를 좋아한다.

그는 남들이 별로 작품의 소재(모티브)로 삼지 않는 초가, 특히 한국의 농가를 많이 그리다가 불행히도 환갑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밀려드는 근대화(내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草家마져 자취를 감추고 地方農村의 家屋 대부분이 서구적 현대풍 가옥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日政 때 어느 외국인이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에 철도 연변에 보이는 農村의 초가들을 보고 「한국에는 웬 돼지우리가 저렇게 많으냐」고 하면서, 나중에야 알았지만 자신이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외국인의 눈에 그렇게 보인 농가, 즉 초가를 근대화하여 洋風의 가옥으로 개조한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지금부터 20여년 전에 대만을 여행했을 때, 지방을 다녀도 농가가 눈에 뜨이지 않길래 중국 농촌에는 왜 농가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중국인 친구 말이 「저기 보이는 붉은 벽돌집들이 다 농가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라디오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습니다.」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이것은 즉, 자유중국의 농촌생활의 정책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근대화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때로 나는 한국의 농촌을 지날 때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서인지 한국농촌에는 역시 草家屋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오랫동안 전래한 한국적 농촌 내지 초가생활에 대한 관념에서 우려나오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예술 내지 회화상으로 볼 때 그림(東洋畫—韓國畫)을 그리자면 역시 초가를 그려야지 현재 근대화된 洋式의 농가를 그려서는 한국적 농촌의 이미지가 나지 않을뿐더러 운치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국의 농촌은 초가집들이 산기슭에 또는 버드나무 사이사이로 다닥다닥 모여 있는 草屋이라야 그림을 그려도 한국농촌의 분위기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草家」를 많이 그린 柳泉 金華백의 민족예술을 이루려는 정신에 매우 동감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국민생활에 있어서 의식의 3종양식이 다 근대화되어 그 대부분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수도, 大서울도 이제 거의가 서구풍으로 근대화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초가는 물론이고, 瓦家마져 점점 그 자취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洋風의 「빌딩」이 들어서 가고 있다.

특히 좁은 강북의 北서울 일대는 좁은 바닥에 양풍의 고층건물이 뿔뿔이 들어차 이제는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씨왕조의 오백년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경복궁, 덕수궁, 창덕

궁, 창경궁, 七宮 등의 왕궁건물이 아직도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인 동시에 우리 민족 건축예술의 자랑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가회동, 계동, 계동, 혜화동, 명륜동 기타 일대에는 아직도 이조 서민생활의 풍모를 알려주는 와옥들이 즐비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더우기 와옥을 그리기 좋아 하는 나로서는) 흐뭇한 마음 그지없다.

듣건대 정부당국에서 서울(기타)의 몇몇 지역의 瓦家들이 모여 있는 住宅지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영구보존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워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와옥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으로는 경주 문촌의 최씨마을, 월성군 강동면의 강동마을, 강릉 교외의 이씨마을,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등등이 생각난다.

그러나 고유한 瓦屋建物の 대표적인 것으로는 먼저 말한 왕궁건물 외에 서울 조계사(이것은 정음에 있던 車京錫의 普天教 건물을 옮긴 것)와 천국 각지 산속에 묻혀 있는 대사찰 건물들이 가장 그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때로 외국 손님들이 찾아 오면 우리의 고유한 풍습을 엿볼 수 있는 민속촌으로 안내하여 우리의 전통있는 풍습을 보여준다. 이 민속촌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유한 풍물을 보여 주려는 것은 초가와 와옥들이다. (자주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고전장면

을 보여주는데 민속촌이 많이 이용된다.)

이곳을 찾아 한국적 풍미가 깃들인 도토리묵과 빈대떡, 그리고 막걸리와 약주 등을 마실 때 나는 곧잘 옛 선비(士夫)들의 운치있는 생활모습에 생각을 빼앗기곤 한다.

그래서 때로는 스케치도 해본다.

명승지의 대표격인 경주와 해인사의 여관, 상점가는 완전히 새로운 한국적 風情을 맛볼 수 있게하여 가볼 때마다 기쁨을 금치 못하거니와 설악산 같은 곳에 가보면 이곳은 전혀 한국냄새는 맛볼 수 없고 어느 서구의 한 산속을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섭섭하기 그지없다.

西洋建物과 繪畵

인류의 원시주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동굴에서 비롯되며 서양은 「스페인」의 「알타미라」동굴을 비롯한 많은 동굴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들 동굴 안에는 원시주민들의 생활을 말해주는 수렵도 같은 벽화가 장식되어 있어 지난날의 인류최초의 회화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원시주거인 동굴은 그뒤 인류문화의 발달과 변천에 의해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變展됨에 따라 여기에 심미적 욕구심에 의한 계절성을 가미하여 17~18세기 쥘의 고딕(Gothic)식 같은 또는 바로크(Baroque)식 같은 신앙성을 표시하는, 그리고 귀족성을 상징하는 건축예술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서양미술사에 있어서 건축물이 회화예술로 등장하게 된 것은 최근세의 일(?)일 것이다. 서양의 그림 중 특히 건축물은 이것이 하나의 풍경화를 구성하는 소재의 하나로서 취급되다가 근대식의 街路풍물이 그려지게 됨에 따라 여러 작가들이 이를 회화표현의 한 「장르」로서까지 다루기 시작했다.

후기 인상파의 「세잔느」·「고흐」가 그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유프필로」가 파리의 가로풍경을 그림으로서 표현하여 건축물이 완전한 회화표현의 주요한 한 「장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東洋建物과 繪畵

동양(특히 중국)에서 원시인의 주거도 역시 동굴에서 비롯된다. 동양 최초의 원시인 주거는 저 유명한 북경 類猿人이 발견된 河北省 周口店에 있는 동굴유적이다.

그뒤 중국문명의 발상지인 황하연안의 황토층에서도 많은 土穴式의 동굴이 발견되어 고대 원시인의 주거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들 동굴에는 당시 원시주민의 생활을 말해주는 그림(벽화)과 조각(線條)이 남아 있어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그 생활에 있어서 美意識이 수반되어 온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인류문화의 진보에 따라 이 주거가 하나의 구체적 권력주의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황제 때로 추정되는 「수궁 이란 政事」를 알아 보는 八角形

(?) 형식의 신전건물로서 비롯되었는데 이후 여러 왕조를 거쳐 내려오다가 이러한 건축물이 하나의 정식 회화의 「카테고리」로서 나타난 것이 「界畵」한 건축화이다.

이 「界畵」류의 그림은 唐宋朝에 들어서서 크게 유행하였다. 劉子忠같은 작가가 그 대표적 화가이다. 이 중국식의 「界畵」류는 마치 자(尺)라도 대고 그린 것 같이 선이 딱딱하고도 운치없는 建築畵인데 이런 「界畵」양식은 그 이후 明·清代에 들어서는 인간, 특히 상류층 생활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풍속화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동양(중국)의 「界畵」양식은 唐宋代에서 그치고 그 이후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韓國建物과 繪畵

우리나라의 고대 건물은 금일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주로 석조물이고 목조물은 오직 기록으로 전할뿐이므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비로소 민가궁궐과 도시성곽의 경영이 발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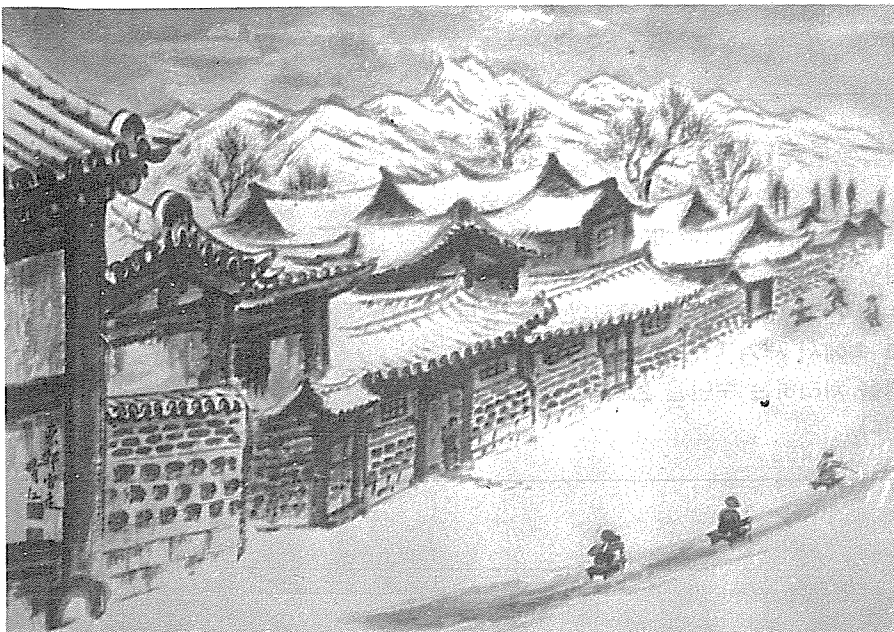
삼국말기에 이르러 차차 대륙의 都城(長安城같은)을 모방하여 형성하기 시작했으니 고구려의 평양성, 신라의 월성(경주), 백제의 전주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반 민가의 형식으로는 중국계(기타 通古斯系·태평양계)가 주류를 이루어 금일에 이르렀으나, 이씨조선조에 들어서 완전히 한국적 특색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의 건축물이 회화로 나타난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이 고구려 고분에 나타나는 건축적 구조물이다.

남만주와 평남 강서등지의 전후의 王都부근에서 발견된 이들 고구려의 建物畵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그 이후 회화상에 건물화가 등장한 것은 극히 드물다.

그저 산수화 아니면 화조화 또는 인물화뿐이다. 이조중엽에 들어 겸제, 단원이 나오면서 산수화에 點景으로 山寺, 村屋 등의 건물이 약간씩 나타나는데 이것도 매우 귀하다.

그러다가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에서 비로소 주막, 민가 등이 나타나서 당시 市井村落의 실상을 전하고 있으



니 이는 참으로 귀한 작품이라 하겠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원래 唐宋代같은 동양(중국)회화사상 황금시대를 이루었던 이 시대의 회화미술이 발달된 기본조건 중의 하나는 작품에 필요한 소재 즉, 「모티프」의 다양성에 있었다. 산수·화조·인물·사군자 등은 물론이고 여가도 道釋인물(종교화), 界畵(건축물), 風俗仕女 등의 다양한 소재가 그림의 재료로서 많이 다루어졌는데 대륙 明·淸의 영향을 받은 이씨조선조의 회화도 그 소재상 빈곤함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근대회화에 있어서 건물화가 나오는 것은 心田(安中植)의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景福宮 光化門圖」같은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日政시대에는 일본세력이 화단을 지배하자 이른바 鮮展같은 데서 비로소 건물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등장했으니 이는 일본의 발달된 회화미술의 상태에 의한 것이다.

당시에 건물을 주제로 그린 작품은 극히 드물지만 畵面의 일부로서 그린 작가는 주로 일인들이었고 한국인 작가로는 以堂(김 은호), 山亭(변 관식), 願菴(이 응노), 雲甫(김 기창), 晴江(김 영기) 등이 있었을 정도이다.

大戰 이후 한국정부가 수립되자 민

족미술의 재건과 회화의 새로운 출발로 많은 그림들이 자유롭게 발전해 나갔으나(國展을 중심으로) 건물을 주제로 한 작가는 序言에서 말한 草家の 전문화가 柳泉 金華慶화백이 대표이다.

그러나 瓦家を 주제로 그린 작품(安相喆氏의 雪瓦가 있을 정도)은 거의 없다. 이점에 통탄착심한 본인은 때로 와옥을 주제로 한 그림을 제작해 보기도 했다. 원래 나는 어려서 아버지 덕택으로 이른바 「고래당」같은 큰기와(蓋瓦) 집에서 자라났다. 내가 소년시절(수송국민학교, 경기중고교)을 지낸 집은 종로구 수송동 38번지(즉 지금의 중동고교 골목의 閔忠正公이 살던 完王宮 이웃집)였다.

당시 이집을 속칭 「趙輔國」 집이라 불렀는데 이 「조보국」이란 조씨의 보국(大臣) 집이란 뜻이다. 오백평의 큰 대지에 팔십칸이 들어선, 이른바 「大家」 집이었다. 따라서 이 큰집은 전부 한국 고유의 개와(蓋瓦)로 덮은 와옥이었으므로 매우 전통적 한국가옥이었다.

나는 소년시절에 이 집에 살면서 때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 「스케치」를 하곤 했다. 이때부터 나는 한옥의 蓋瓦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났고 따라서 이 구비구비 골지어 나란히 덮여 있는 「기와지붕」에 대한 애착심은 이것을

畵面에 옮기어 그리는데 흥미를 갖게 했다.

이렇게 덮여 있는 기와지붕이 춘하추동 또는 아침 저녁으로 자연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나로 하여금 점점 나의 예술세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했다.

6.25동란 때 나는 시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시끄러운 피난처의 중심지 부산에다 가족을 남겨두고 나홀로 古都 경주에 가서 3년의 피난살이를 보냈다.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경주에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羅塘의 고적을 찾아 수많은 「스케치」를 하였는데 이것이 오백여장을 넘었다.

古都 경주가 나에게 준 가장 좋은 이미지는 다른 곳(大邱나 부산등지)보다도 많은 와옥이 고분 사이사이에 동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다가 허물어져 가는 돌담과 돌담,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삐뚤삐뚤 굽이쳐 덮여 있는 蓋屋의 지붕들, 때로는 이끼도 끼고 잡초 무성한 민가촌옥들과 부딪칠 때마다 나는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 그리고 선인들의 지나간 여러가지 사연·추억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스케치」하는 붓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했다.

♣ 建築宣言文 / 아테네憲章 - 2 信條 중에서

都시는 앞으로는 기능적인 單一体로서 규정되는 것이며 도시의 각부분이 조화있게 성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는 발전의 단계를 균형 유지의 방법으로 그 속에서 새겨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연결을 처리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